

## 2022년 금융시장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장명화 선임연구원(clarajang@kdb.co.kr)  
 박찬우 선임연구원(pcw742@kdb.co.kr)  
 천경원 선임연구원(cheonkw@kdb.co.kr)  
 이재준 연구위원(june97@kdb.co.kr)

### I. 해외 금리

### III. 외환시장

### II. 국내 금리

2022년 주요 선진국의 국채금리는 견조한 글로벌 경기회복세, 통화정책의 점진적인 정상화 움직임 등으로 상승압력이 우세할 전망이다. 한편, 신흥국은 선진국들의 조기 긴축전환 움직임 등에 연동한 중앙은행들의 금리인상 동조 유인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선진국 대비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준금리는 국내경제의 회복세 지속, 물가상승 압력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1년에 이어 추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고, 국고채 발행물량 감소로 양호한 수급환경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채 시장은 대기업 투자수요 증가로 순발행 흐름은 유지되나, 기업들의 선발행과 높아진 이자부담 등으로 순발행 규모는 축소될 전망이며, 신용스프레드는 기업실적 개선과 이로 인한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 채권시장 전반의 양호한 수급 등으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화는 테이퍼링 종료 이후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한 경계감으로 강세 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유로화는 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약세가 전망된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수출 호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기조, 중국 위안화 강세 등의 요인으로 하락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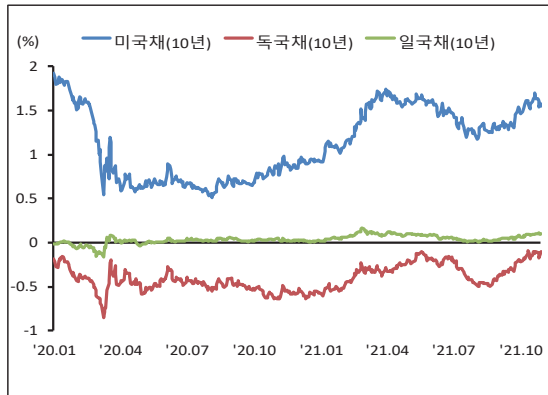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 I. 해외금리

### □ 2022년 선진국 국채금리는 경기회복세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등에 따른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으로 점진적인 상승 예상

- 2021년 국채시장은 주요국들의 통화완화정책 지속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통화정책 전환 조기화에 대한 우려와 안도를 거듭
  - 미국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유지했으나, 시장금리는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연준의 통화완화정책 방향성에 1.1~1.7% 구간 등락
  -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준금리를 각각 0%와 △0.1%로 유지해오던 유로존과 일본의 경우 독일과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가 각각 마이너스 수준과 0% 수준을 유지
  
- 2022년 주요 선진국 국채금리는 견조한 경기회복세, 통화정책 정상화로의 점진적 흐름 등을 고려시 상승압력이 우세할 전망
  - 미국은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등으로 2022년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확대되는 추세로, 공급망 병목 지속 여부 등도 이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유럽의 경우도, EU 회원국간 경기회복 여건의 차이를 감안하여 통화정책 정상화 일정을 완만하게 가져갈 전망이나, 독일국채 대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유럽경제회복기금(NGEU) 채권의 발행량 증가 등으로 금리상향 가능성에 무게

〈그림1〉 주요국 10년물 국채금리 추이



자료 : Bloomberg

〈표1〉 주요국 10년물 국채금리 전망

(단위 : %)

	2022			
	Q1	Q2	Q3	Q4
미국	1.75	1.85	1.90	2.00
독일	-0.07	0.03	0.10	0.13
일본	0.10	0.11	0.12	0.15

주 : 전망시기 - 2021.11.12

자료 : Bloomberg 전망치 중간값

□ 2022년 신흥국 국채금리는 각국 통화당국의 인플레이션 통제 처방, 선진국 긴축 개시 우려 등으로 추가 상향 가능성

- 2021년 신흥국 국채금리는 경기회복세 강화, 투자심리 개선 등에 따라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
  - 2020년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신흥국 국채 EMBI<sup>1)</sup>가 728pt까지 하락하고, EMBI스프레드는 662bp까지 치솟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2021.11월 현재 각각 900pt, 300bp 수준에서 안정화

<그림2> 신흥국 국채지수와 EMBI 스프레드 동향



자료 : Bloomberg

- 2022년에는 글로벌 경기회복 지속에 따른 물가 자극,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에 따라 자국 자본의 해외유출 등을 막기 위한 신흥국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선제조치 여부에 주목할 필요
  - 브라질, 러시아는 2021년 중(~11.10일) 이미 기준금리를 각각 575bp, 325bp 인상한 바 있으며, 2022년에도 물가상승 압력 및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등으로 신흥국 국채금리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1) EMBI(Emerging Market Bond Index) : 신흥국 국채가격을 반영하는 지수이며, EMBI 스프레드는 신흥국 국채 수익률과 미 국채 수익률 간의 차이를 일컫는데, 이 스프레드는 위험자산인 신흥국 채권이 안전자산인 미 국채와 동등하게 선호되기 위해 추가 제공해야 하는 수익률로서 EMBI 스프레드의 확대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등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됨을 의미

## Ⅱ. 국내 금리

### 1. 기준금리

□ 2021년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맞물려 한은은 유동성 확대에 의한 부작용에 대응하고자 예상보다 빨리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 돌입

○ 미 연준은 고용회복이 목표치에 근접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자 통화 완화정책으로 매월 실시하고 있는 국채(800억 달러)와 MBS(400억 달러) 매입 규모를 11월부터 매월 각각 100억 달러, 50억 달러씩 축소하기로 결정

\* 미국 소비자물가 추이(yoy,%) : 1.3('21.1) → 5.3('21.6) → 6.2('2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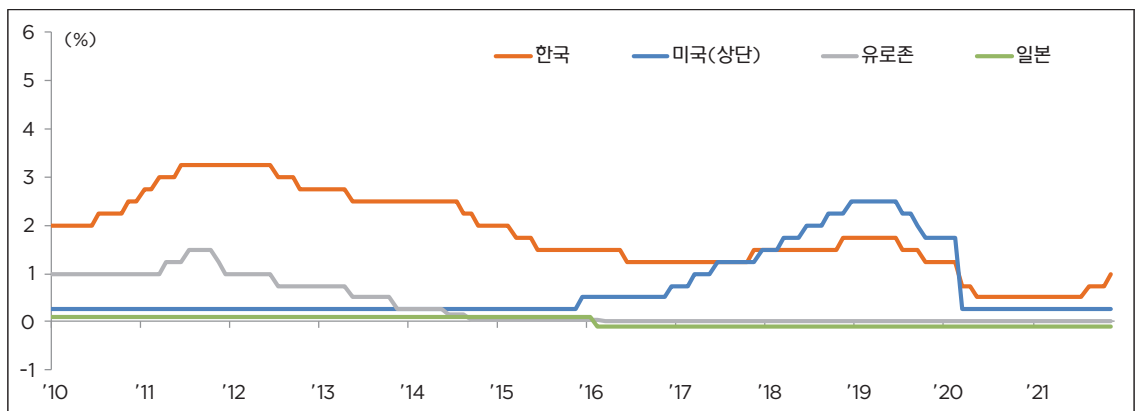
○ 한은도 국내경제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에서 정상화 과정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2)

-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 등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

\* 기준금리 추이 : 0.5%('20.5) → 0.75%('21.8) → 1.00%('21.11)

<그림 3>

주요 선진국 기준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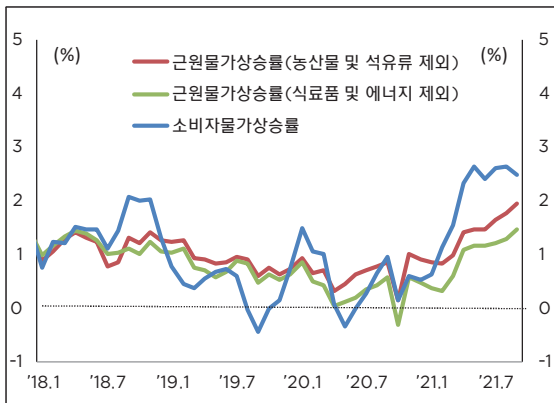
자료 : 각국 중앙은행

2) 한은은 2021.10월 금통위(통화정책방향문)에서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점진적 조정'에서 '적절히 조정'으로 변경하며 본격적인 정책 기조 전환을 암시

□ 2022년 국내경제의 회복세 지속, 물가상승 압력 등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상

- 2022년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로 전세계적인 통화정책의 정상화 기조가 본격화 되면서 국내 기준금리의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IMF(2021.10월)에 따르면 2022년 전세계 경제 성장률은 4.9%, 선진국 4.5%, 신흥국 및 개도국 5.1%로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 경제도 2022년 3.0% 수준의 양호한 성장률이 전망되고, 물가상승, 경기 개선상황을 고려한 실질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sup>3)</sup>
  - 백신보급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 원자재 가격 상승, 해상물류 지체 등 단기적인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 작용
  - 2021.10월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금리는  $\Delta 2.43\%$ 를 기록하고 있어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이 낮은 상황

<그림 4>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주 : 전년동월비  
자료 : 통계청

<그림 5> 기준금리 및 실질금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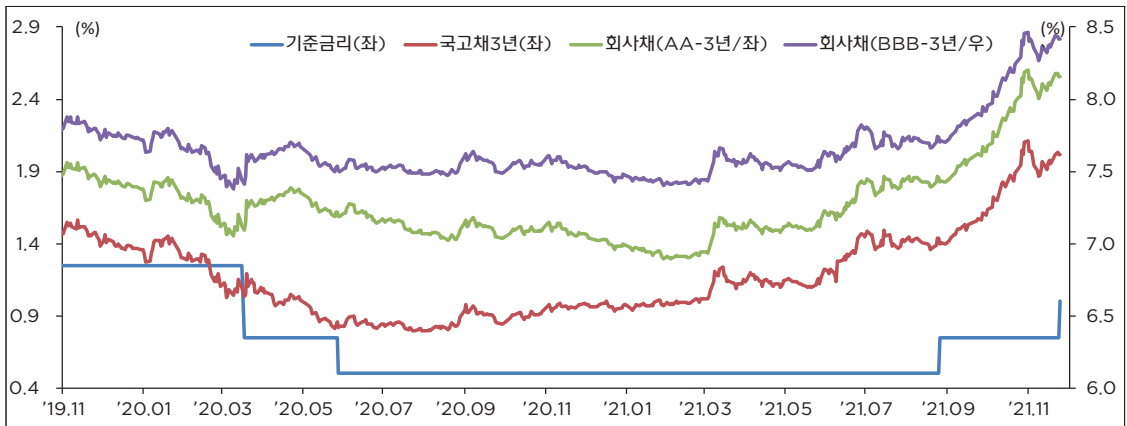
3) 한은 총재는 “신용 공급을 고려해 보면 실물경기를 제약하는 수준은 아니며 현재의 기준금리는 한은이 추정하는 중립금리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이라 언급(2021.8.26. 기자 간담회)하였으며, 한은의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2021.9월)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 소비 위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2. 시장금리

□ 2021년 시장금리(국고채 3년)는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테이퍼링 종료 등 글로벌 금리 상승요인 확대로 상승

- 2021년 상반기 시장금리는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통과 가능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미 국채금리와 동조화 흐름을 보이며 상승하였으나, 코로나 재확산 영향으로 금리 상승세가 제한되었음
- 하반기에 접어들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강화되고,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인상을 선제적으로 반응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
  -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중국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 등 대외적 불안 요소 확대가 추가적인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그림 6〉 기준금리, 국고채금리, 회사채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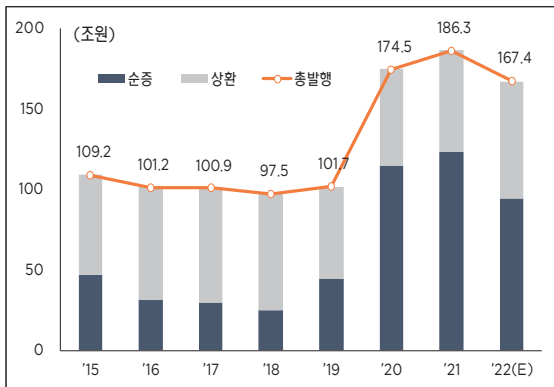
주 : 회사채금리는 민간신용평가사 3사 평균

자료 : 한국은행, 연합인포맥스

□ 2022년 시장금리(국고채 3년)는 기준금리 인상 선반영, 양호한 수급환경 등으로 추가상승이 제한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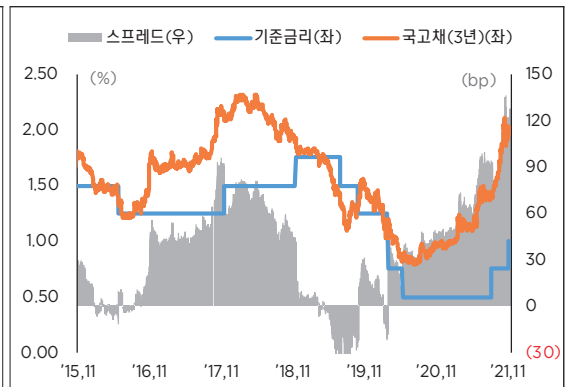
- 국내외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움직임이 국내 시장금리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연평균금리는 전년대비 상승 전망
- 다만,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대감이 2021년 하반기 금리급등으로 선반영되어 있으며, 내년도 국고채 발행물량의 감소로 수급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2년 시장금리는 안정세를 보이며 추가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
  - 국고채 3년물과 기준금리 간의 스프레드가 11월초 136bp까지 확대되는 등 향후 기준금리 인상 폭에 대한 시장의 예상을 선반영
  - 2022년 재정지출 증가율 감소와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호황으로 국고채 총발행규모와 순증규모가 감소하면서 양호한 수급환경이 예상됨
- 2022년 연간 평균금리(국고채3년물)는 1.8% 수준으로 예상
  - 2021년 평균 : 상반기 1.12%, 하반기 1.7%(E), 연간 1.4%(E)

〈그림 7〉 국고채 발행규모 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그림 8〉 국고채3년물 기준금리 스프레드



자료 : 금융감독원, 연합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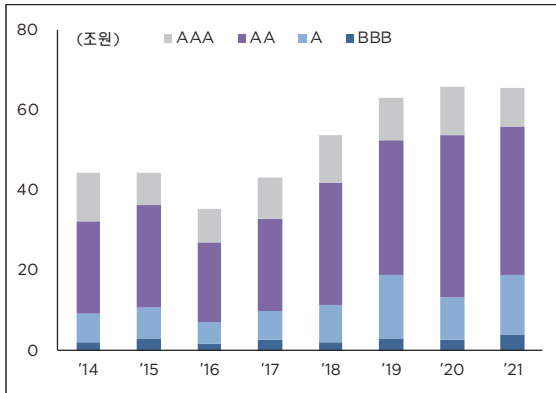
4) 2022년 국가예산안(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국고채 발행 한도는 순증용 94.9조원, 일반회계 적자국채 77.6조원, 상환용 72.6조원으로 구성되고, 총발행규모(167.4조원)는 전년 대비 18.9조원 감소, 순증 규모(94.9조원)는 전년 대비 28.8조원 감소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는 다소 높지만 코로나19 이후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임

### 3. 회사채 시장

□ 2021년 회사채 시장은 저금리 환경, 금리인상 전 선발행 수요 등으로 순발행을 지속하였으며, 신용스프레드는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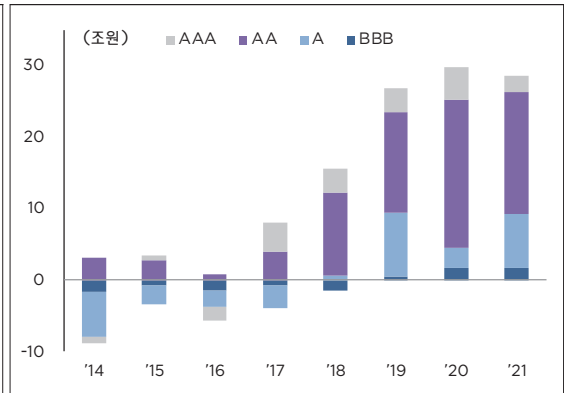
- 2021년 회사채 발행시장은 저금리 환경, 기업의 선제적 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순발행을 지속한 가운데, 비우량 회사채 발행규모가 전년대비 확대
  - 2021.1~10월 중 회사채 발행규모(95조원)는 전년동기대비 9조원 증가
  - 2021.1~10월 중 A등급 이하 비우량 회사채 발행규모(19조원)는 기업유동성지원 기구(SPV)<sup>5)</sup> 매입기간 연장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6.5조원 증가

<그림 9> 회사채 발행 규모 추이



주 : 2021년은 1.1~10.31일  
자료 : 코스콤

<그림 10> 회사채 순발행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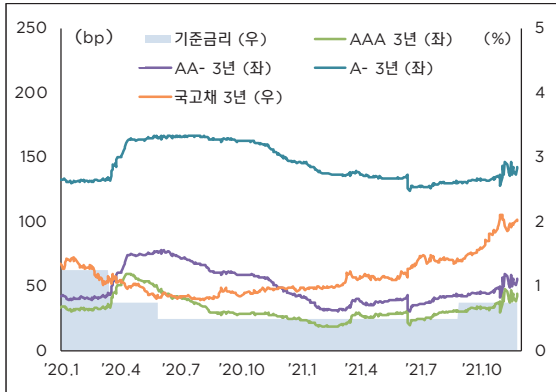


주 : 2021년은 1.1~10.31일  
자료 : 코스콤

- 2021년 신용스프레드는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보이다 하반기에는 금리상승에 따른 수익률 하락 우려로 투자수요 감소하며 확대
  - 한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매입기간 연장으로 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우량채와 비우량채의 등급간 스프레드는 축소됨. 특히, A등급과 AA 등급 사이의 차이가 대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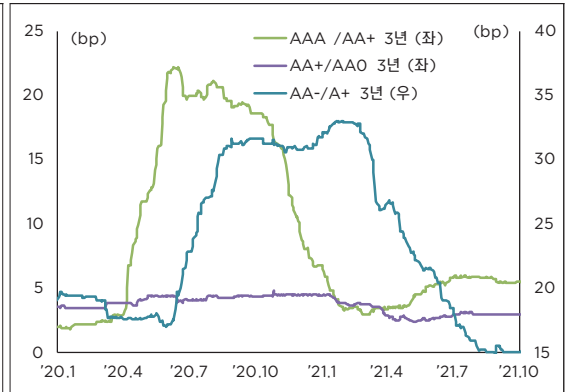
5)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는 2020.7월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기업어음 매입기구로 출범하였으며, 정부와 한국은행, 산업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SPV 매입 기간을 2021.7.13에서 2021년말까지 연장하였음.

<그림 11> 신용스프레드 추이



주 : 회사채는 민간신용평가사 3사 평균  
 자료 : 연합인포맥스

<그림 12> One-notch 신용스프레드 추이



주 : 민간신용평가사 3사 평균  
 자료 : 연합인포맥스

□ 2022년 회사채 시장은 순발행 지속 예상, 기업실적 개선, 양호한 수급 등으로 신용스프레드는 안정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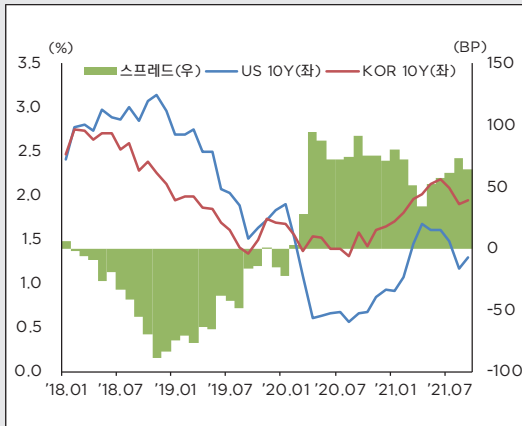
- 2022년 회사채 시장은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순발행 기조가 이어지겠으나, 기업들의 선발행, 높아진 이자부담 등으로 순발행 규모는 축소될 전망
  - 대기업을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우량채 위주의 발행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금리인상 전 기업들의 회사채 선발행, 금리상승으로 높아진 이자부담 등으로 순발행 규모는 축소될 전망
  
- 2021년 하반기 확대되었던 신용스프레드는 2022년에는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과 이로 인한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 채권시장 전반의 양호한 수급상황 등을 감안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

## ISSUE. 한·미 금리차에 따른 외국인 국내 채권투자 동향

### □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한·미 금리차가 확대되자 우리나라의 채권 매력도가 높아져 외국인의 대규모 채권투자 자금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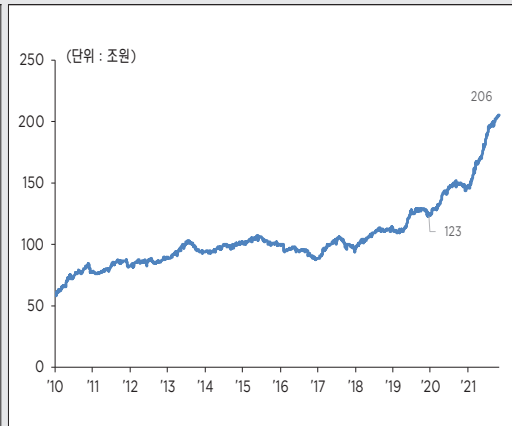
-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미 연준이 제로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우리나라와 미국 간 금리차가 확대
  - 2020.1월 이후 현재까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우리나라 10년물 국채금리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
- 코로나19 이후 한·미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외국인의 채권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 기록
  -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 보유 잔액은 2019.12월 123조원에서 2021.11월 206조원으로 83조원 증가(약 67.4%)
- 외국인의 채권투자 자금 유입은 외화 유동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채권자금이 가파르게 유입되었고, 유입규모가 전례 없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 및 외환시장의 잠재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가능

한·미 국채금리 스프레드



자료 : Datastream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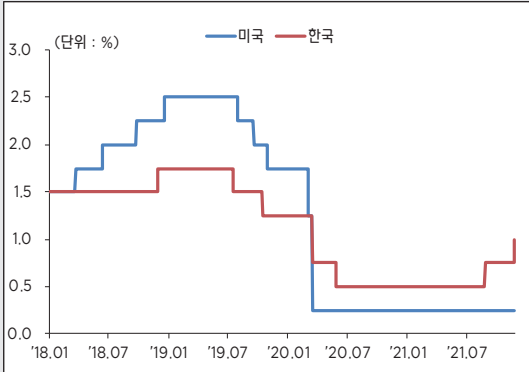


자료 : 인포맥스

□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한·미 금리차가 축소될 경우 외국인의 채권자금 유입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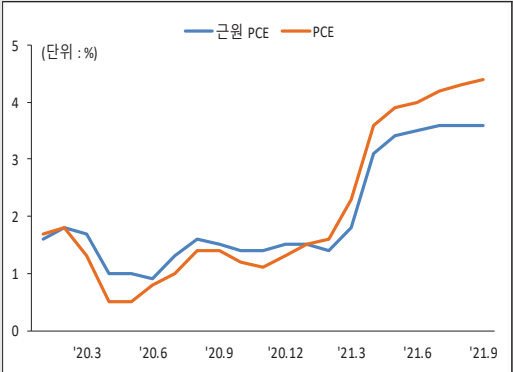
- 2021.11월부터 진행되는 미 연준의 테이퍼링에 따른 달러화 강세 압력 및 테이퍼링 종료 후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한·미 금리차가 좁혀질 경우 외국인의 채권투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
  - \* 2021.11월 FOMC에서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 등에 따라 테이퍼링을 결정하면서 통화완화 종료를 공식화
-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은 유출입의 변동성이 높으며, 달러화의 강세 압력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채권자금 이탈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관련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있음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



자료 : 인포맥스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추이



자료 : 미 상무부

### Ⅲ. 외환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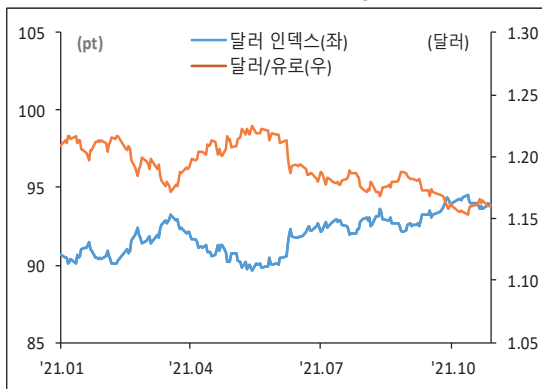
#### 1. 2021년 동향

□ 2021년 달러화는 미 연준의 테이퍼링 우려로 인하여 강세, 유로화는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ECB의 통화정책으로 약세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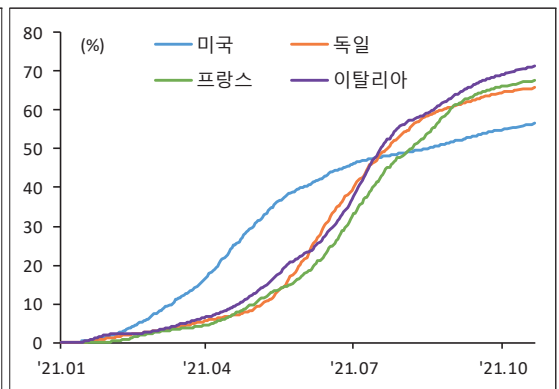
- (달러화) 달러 인덱스(좌)는 빠른 경기회복세와 테이퍼링 우려에 따라 강세 흐름
  - 1분기 빠른 백신 보급과 강력한 재정정책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2분기 완화적인 미 연준의 기조가 지속되며 강세 흐름 약화
  - 하반기에는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 중국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 등에 따른 안전 자산 선호심리 강화, 연준의 테이퍼링 현실화 움직임으로 인해 강세 흐름 시현

- (유로화) 달러/유로 환율은 2분기 백신보급에 따른 일시적 강세 이후 약세 흐름
  - 연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유럽 국가 봉쇄조치 연장 등으로 약세를 보였으나 2분기 백신보급 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로 강세 전환
  - 하반기 경기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ECB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의 영향으로 약세 흐름

<그림 13> 달러 인덱스 및 달러/유로 환율 추이 <그림 14> 주요국 코로나19 백신접종률 추이



자료 : 연합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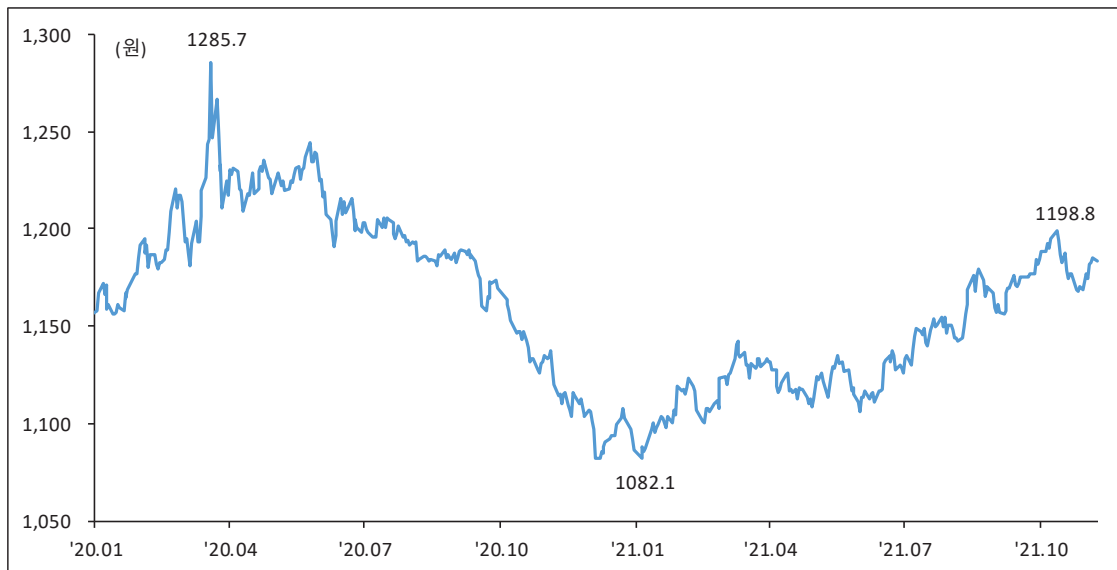
자료 : ourworldindata.org

6) 메이저 6개 통화(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네) 대비 달러화의 가치

□ 2021년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 헝다그룹 사태 등으로 상승 흐름 시현

- 2020년 원/달러 환율은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1,285.7원까지 상승했으나 한미 양국 중앙은행의 통화스왑 체결, 미국의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 등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21.1월 1082.1원까지 하락
- 2021년에는 미 국채금리 상승 등에 따른 달러화 강세,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 헝다그룹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상승 추세를 보임
  - 테이퍼링 예상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 미 주식시장의 호황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의 미국내 유입 등으로 달러화는 강세를 보임
  - 반면, 한국은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확대되며 원화 약세 압력을 받음
  - 2021.10월에는 미 국채금리의 상승과 함께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인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 소식에 따른 위험자산 기피 심리가 확대되며 연중 최고치인 1,198.8원까지 상승 이후 1,160~1,180원 사이에서 등락 중

〈그림 15〉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 연합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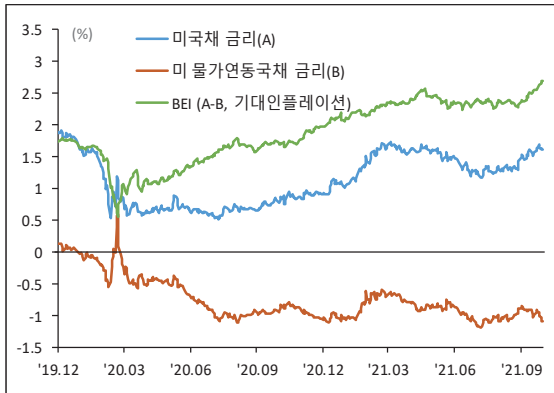
7) 외국인 상장주식 순매수 추이(조원) : 2019년 +16 → 2020년 △24 → 2021년 1~10월 △31

## 2. 2022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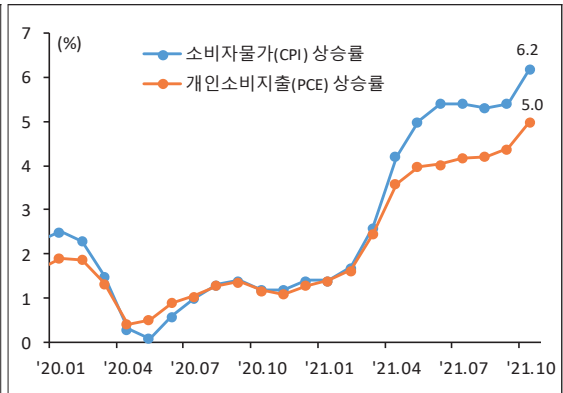
### □ 2022년 달러화는 경기회복세와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강세 요인 우세

- 미국의 경기회복세 지속,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달러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
  - 경제재개 및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미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으며, 2022년에도 인프라 투자 등<sup>8)</sup>을 바탕으로 회복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
  - 2021.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대비 6.2%로 수개월간 높은 수준이 지속
  - 테이퍼링은 2021.11월에 시작되어 2022년 중반에 종료될 예정으로 물가상승이 지속된다면 연준이 테이퍼링 종료 이후 금리인상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 존재
    - 과거에는 테이퍼링 종료와 기준금리 인상 간에 1년 이상의 시차가 존재<sup>9)</sup> 하였으나 이번에는 물가상승 압력 등의 요인으로 금리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음

〈그림 16〉 미국 국채(10년) 금리 및 BEI 추이    〈그림 17〉 미국 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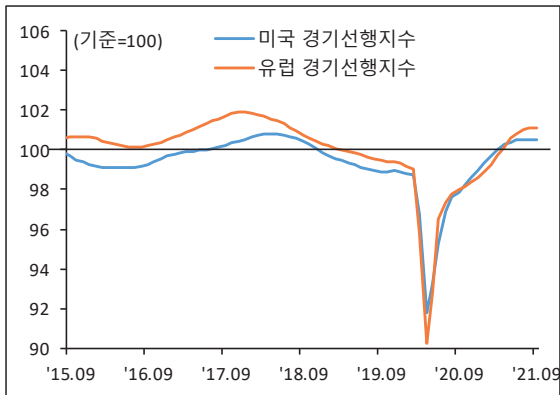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8) 바이든 정부의 1.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예산이 2021.11월 미 의회 통과를 통과했으며 1.75조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예산도 의회에서 협상 중  
 9)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3번의 양적완화 이후 2014.1~10월에 걸쳐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2015.12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음

□ 2022년 유로화는 유럽지역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연준에 비해 완화적인 ECB의 통화정책 기조로 약세 요인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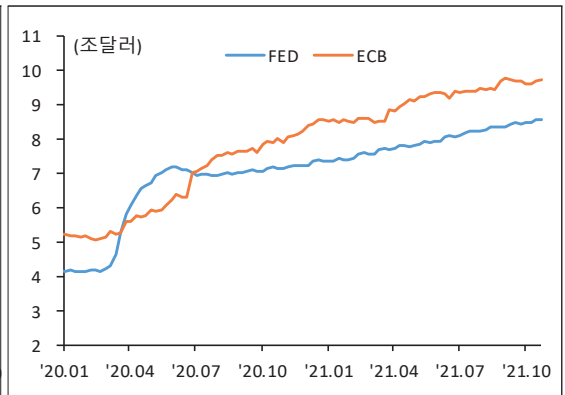
- 유럽지역의 경제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연준에 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약세 예상
  - 2021년 초 상대적으로 더딘 경기 회복세를 보였던 유럽 경기는 하반기부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소비 개선을 보이며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sup>10)</sup>, 유럽경제회복기금<sup>11)</sup> 등에 힘입어 2022년에도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
  - ECB는 양적완화 정책인 코로나19 긴급매입 프로그램(PEPP)을 2022.3월까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준에 비해 통화정책 정상화에 신중한 모습
    - 2021.10월 ECB통화 정책회의에서 라가르드 총재는 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겠으나 내년에는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기존의 완화적인 입장을 고수
    - ECB와 연준의 통화정책 차이는 유로화의 약세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

<그림 18> OECD 경기선행지수(CLI)



자료 : OECD

<그림 19> 미국 및 EU 중앙은행 자산규모 추이



주 : Bloomberg

10) 유로지역의 2021년 성장률 전망 : ECB 4.6 → 5.0(6월→9월), OECD 4.2 → 5.2 (5월→12월)

11) 유럽경제회복기금(NGEU)은 8,069억유로 규모로 2021.8~9월 515억유로가 첫 집행되었으며 2026년까지 7,238억유로가 집행될 예정

□ 2022년 원/달러 환율은 수출 호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기조, 중국 위안화 강세 등의 요인으로 하향 안정화 전망

- 원/달러 환율은 수출 호조 및 소비회복 등 국내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이 외환 시장에 반영되면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기조도 환율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경기 회복 및 교역량 증가<sup>12)</sup> 등으로 2022년에도 수출의 호조세<sup>13)</sup>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백신보급에 따른 방역단계 완화로 소비회복 예상
  - 한은의 선진국 대비 선제적 금리 인상은 사전에 자본유출을 방지하고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을 안정시키는 효과
- 중국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위안화 강세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원/달러 환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sup>14)</sup>
- 다만, 연준이 고용회복을 바탕으로 물가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표 2〉 2022년 주요 환율 전망

	2021년(E)					2022년(F)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원/달러 환율	1,114	1,121	1,158	1,175	1,142	1,160	1,120	1,140
달러/유로 환율	1.204	1.205	1.178	1.150	1.184	1.140	1.130	1.135

주 : 각 기간 중 평균환율

12) 세계교역량 성장률 추이(IMF, yoy) : '19년 0.9% → '20년 △8.2% → '21년(E) 9.7% → '22년(E) 6.7%

13) 수출기업의 업황실적 BSI 추이 : '20.3월 77 → 6월 53 → 12월 86 → '21.3월 94 → 6월 108 → 10월 101

14) 중국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수입물가 억제와 구매력 증대 측면에서 효용성이 큰 위안화 강세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은 대중국 수출비중이 30%에 육박하는 등 중국과 경제금융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위안화 방향에 원화가 동조화하는 경향이 있음